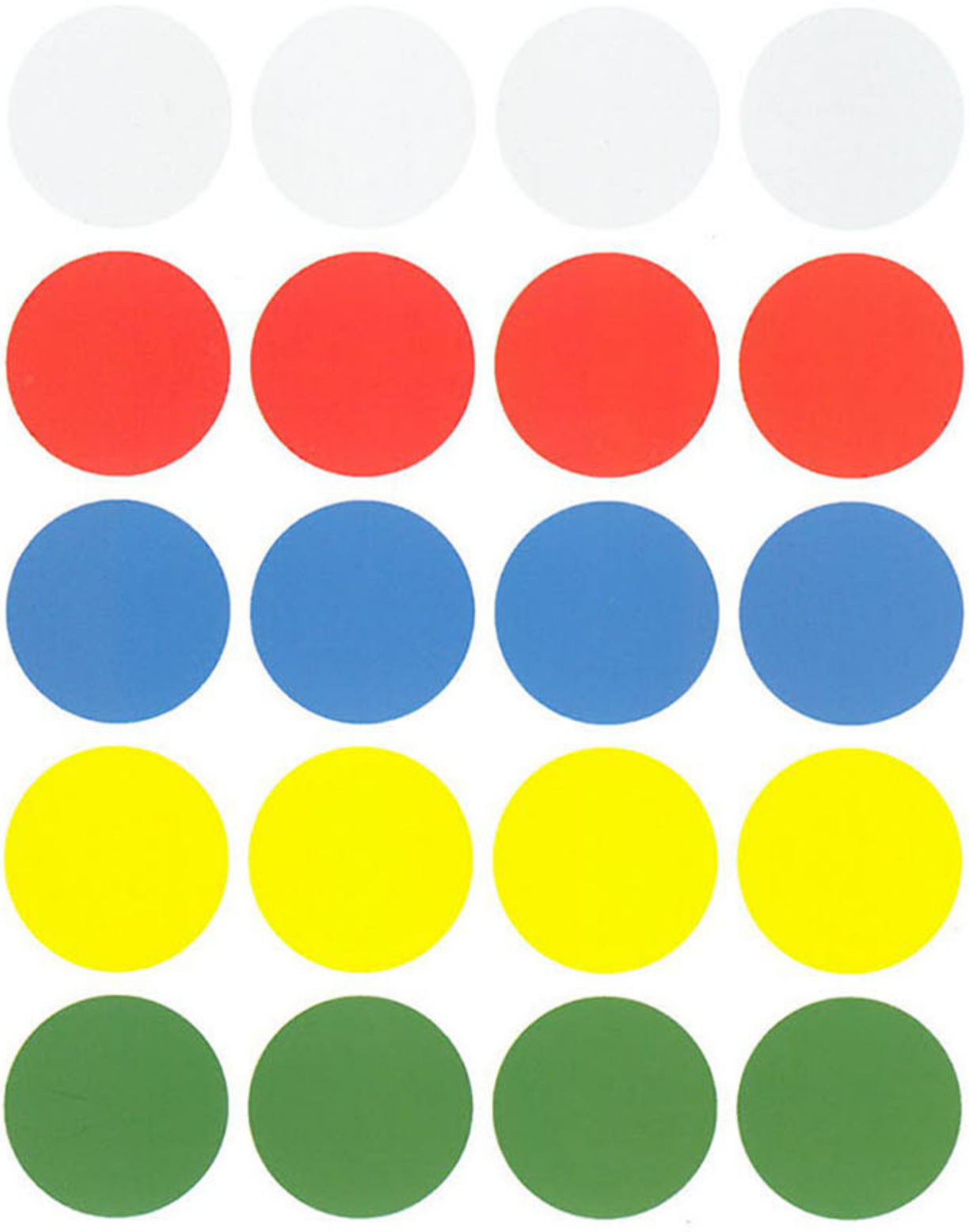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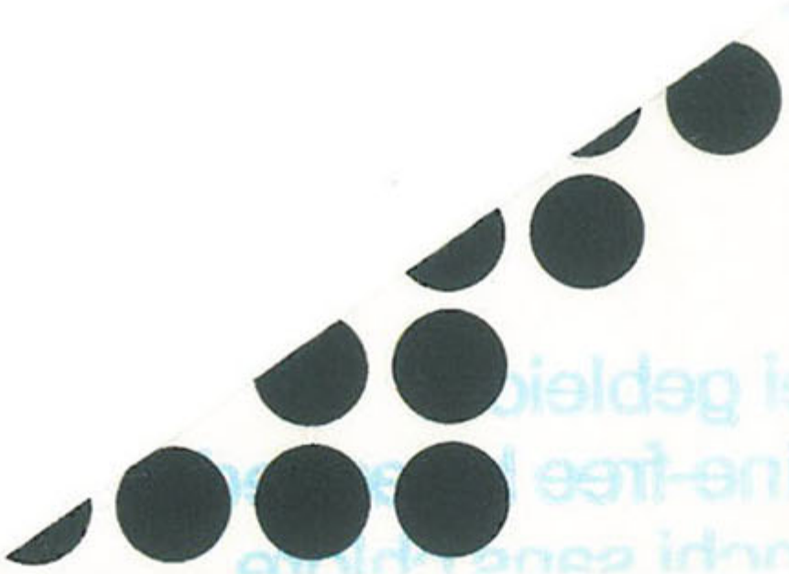
ASIANA

culture, style, view

Monthly In-flight Magazine

August 2016





2016-2018 VISIT KOREA YEAR

ASIANA AIRLINES

A STAR ALLIANCE MEMBER

text by Han Yeah-Joon

Graphic Artist Na Kim

Suppose you're given a difficult mathematical problem. To solve it, you may have to think hard for days, and the longer you struggle, the greater your joy is when you finally arrive at the answer. The kind of clarity that you might feel on solving such a problem is also to be found in the works of artist Na Kim.

Na Kim started her professional career as a designer. Through the books and art exhibitions that she either created or participated in, she came to be known as an 'artist' who worked in a variety of media. My own first encounter with Kim was at the exhibition «Life A User's Manual», held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in 2012. At the time, Kim was in the process of closing down the design office that she had run for a long time in the Netherlands, in readiness for moving to Seoul. Underscoring that transitional situation, she transferred her entire Amsterdam studio intact, as one room, in the exhibition hall. That's where she "worked" for 50 days. Some 36 artists and teams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but Kim's unmodified performance was a particular center of attention.

Although she routinely goes through a creative process characterized by deep reflection, Kim's hope is that her artistic language will not seem too solemn. "Visual design," she explains, "is a language for bringing unity to a mixture of troublesome elements. It's simple and swift. Even when I first chose the field of graphic design, that point was the most attractive to me."

Her interest in collections is essential to her creating process: "I'm not so much interested in making something artificial as I am in combining things that are already made in order to make something new. Primary colors such as red and yellow seem perfect in themselves, but in reality they vary slightly with factors like printing conditions and national taste. If you compare different examples of striped wrapping paper, you'll find differences in the spacing and angling of the stripes according to national preference." That explains why Kim is keenly interested in industrial products like striped wrapping paper and stickers. Whenever she has time, she spreads out her collection on the table, intent to capture the perfect co-existence between its elements.

Perhaps all artists follow a set of personal rules when producing artworks. And even if they may not have working rules, they may possibly have rules by which they live their personal lives. Kim, however, goes further than that. She subjects herself to new rules whenever her encounters a new project; that way her work starts with solving a situation. Compared with architecture, this process is like preparing the ground. The new rules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given conditions and parameters of each project. In this way, her work can be based on reality.

Kim's solo show «SET», held last year at the Doosan Gallery in New York, was based on the concept of transferring her collection book to the walls of the exhibition hall. "It was an exhibition to introduce who I am," explains Kim. "I decided to collect the posters, books, exhibitions, and graphic identity projects that I had produced up to that point as a designer, make them into a book, and transfer them into an exhibited project."

The reception of the finished book exceeded all expectations. And because Kim had already won many fans both in Korea and overseas as former art director of the design magazine *GRAPHIC*, the book was well received abroad as well. The remaining work was in arranging the exhibition itself. Kim carefully measured the total wall length of the exhibition space she had been given, then divided it into fixed spac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ges in the book. Within these given spaces she arranged the formal elements in the order that they appeared in the actual book. The transfer was not a mechanical one: She followed the order of the pages in the book, deciding the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the elements according to the harmony existent between them, and thus using an entirely new language.

Style is not important to Kim, but the creation of a new language is important. In light of this, it seems trite to call her an artist who crosses freely between different fields. "In the fine art world, there's a tendency to emphasize the story conveyed by the artwork and to avoid talking concretely about its form. Because I'm a designer, I'm free to talk about that aspect. I think we should all take pride in a viewpoint of our own that enables us to speak in a different language that way."

Na Kim won the visual art division of the Fourth Doosan Yonkang Art Awards, and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Found Abstract» at the Gallery Factory in 2011, «Choice Specimen» at the Doosan Gallery Seoul in 2014, and «SET» at the Doosan Gallery New York in 2015. She has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group exhibition «Wellknown Unknown» at the Kukje Gallery.

Courtesy the Artist / In Cooperation with Kukje Gallery

"Found Composition," 2009-ongoing

그래픽 아티스트 김영나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당신은 몇 날 며칠을 끙끙댈지도 모르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해답을 찾은 기쁨은 커질 것이다. 아티스트 김영나의 작품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냈을 때 느낄 법한 명쾌함이 있다.

글. 한예준

편집 디자이너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김영나는 그녀가 선보이는 책, 예술 공간, 전시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예술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012년,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전시 '인생사용법'에서였다. 디자인과 삶의 접점을 찾는 기획 전시였다. 당시 김영나는 오랜 시간 운영해온 네덜란드의 디자인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서울로의 이주를 앞두고 있었고, 이런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해 암스테르담의 작업실을 전시장의 방 하나에 그대로 옮겨 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50여일간 '근무'를 했다. 36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는데 유난히 많이 회자된 게 그녀의 이 가공하지 않은 퍼포먼스였다.

매번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만 자신의 언어가 진지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김영나의 바람이다. "시각 디자인은 여러 거추장스러운 요소를 하나로 종합해서 보여주는 언어예요. 단순하고 민첩하죠. 처음 그래픽 디자인을 택할 때도 그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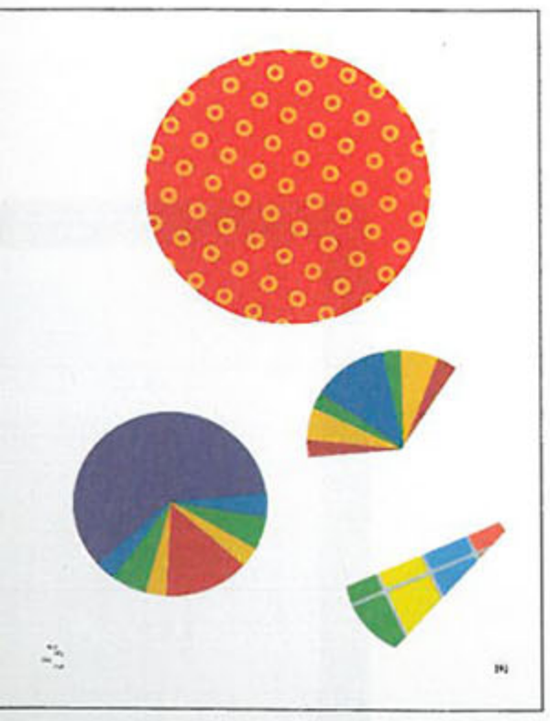
그녀는 누군가의 캐릭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수집품을 꼽는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나는 줄무늬 포장지, 스티커 같은 문구류를 모은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에 흥미를 느껴요. 빨강, 노랑 같은 원색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완벽해 보이지만 실은 인쇄 상황이나 국가별 취향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줄무늬 패턴 포장지의 경우도 여러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국가별로 선호하는 줄무늬의 간격, 각도 등이 다 달라요. 그런가 하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묘하게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가가 공산품에 호기심을 갖는 이유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수집품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그것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장면을 잡아낸다. 마치 놀이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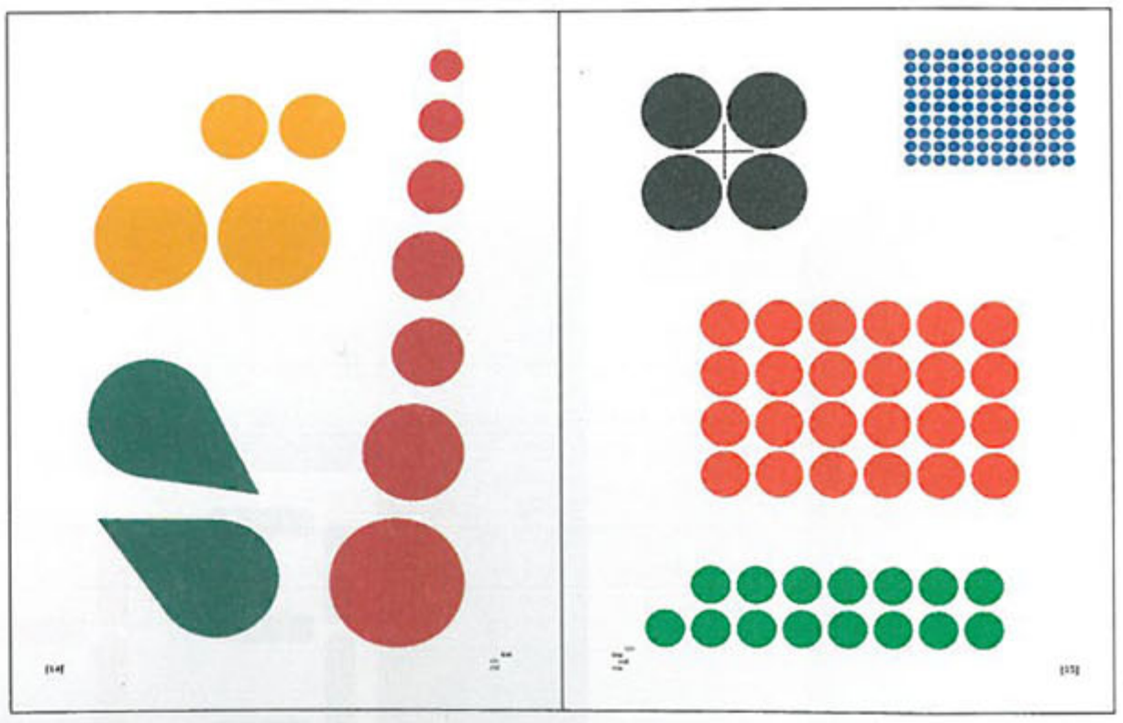
작가라면 작품 제작에 대한 자신만의 규칙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생활 철칙이라도 있을 것이다. 김영나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매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규칙 속에 자신을 몰아넣는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건축으로 치면 터 잡기나 마찬가지다. 새로운 규칙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바탕으로 설계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란 전제가 중요한 이유는 김영나가 언제나 현실에 기반을 둔 작업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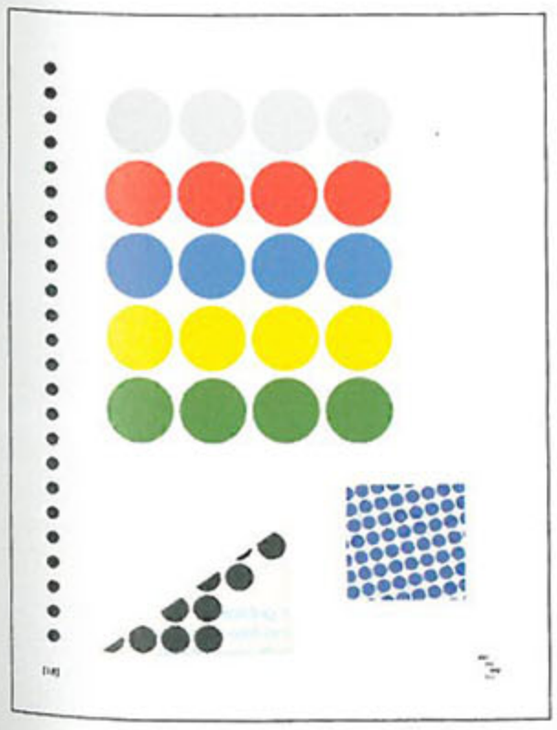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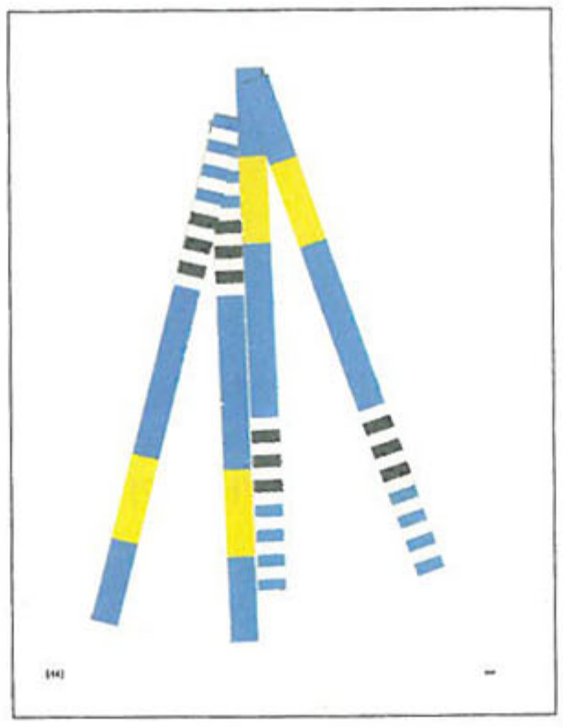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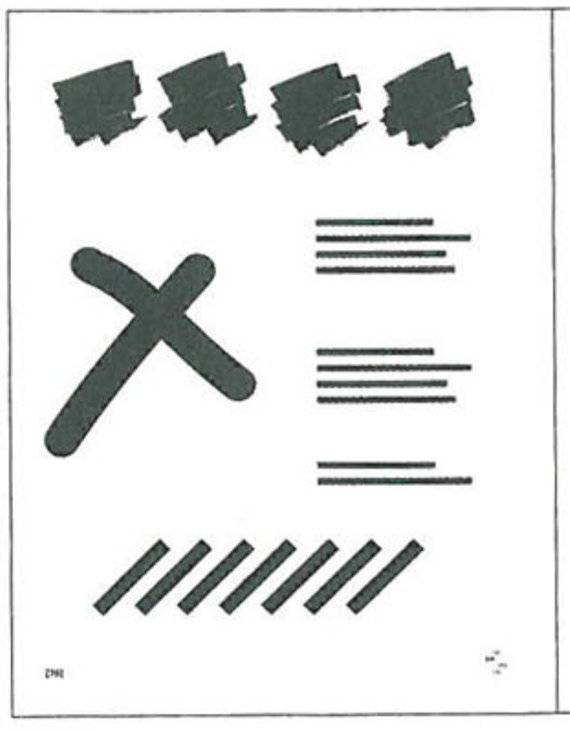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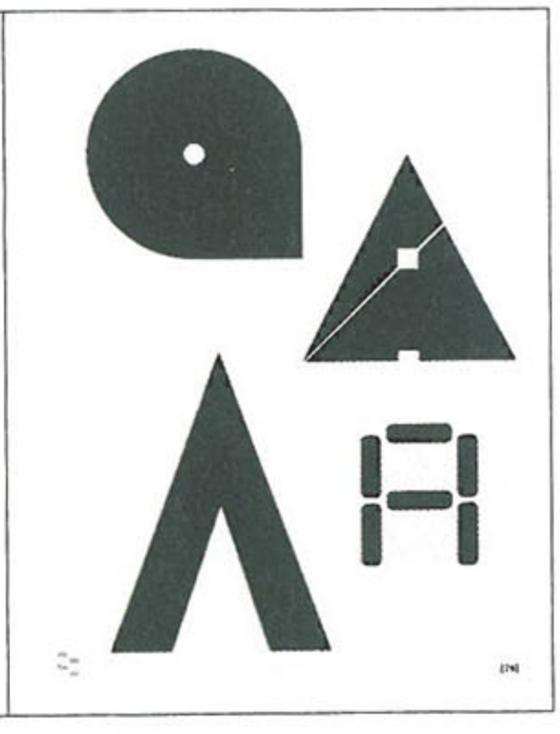
지난해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열린 개인전 'SET'는 자신의 작품집을 전시장 벽으로 옮긴다는 콘셉트였다.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기 위한 전시였어요. 이제까지 디자이너로서 작업해온 포스터, 전시, 책, 그래픽 아이덴티티 작업 등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전시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책의 편집 디자인은 제가 하지 않고 동료 디자이너에게 의뢰했어요. 기존의 맥락에서 벗어나 하나하나의 작품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전혀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완성된 책에 대한 반응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한때 디자인 잡지 <그래픽(GRAPHIC)>의 아트 디렉터로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도 많이 확보하고 있던 터라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제 남은 건 전시였다. 작가는 주어진 전시장 전체 벽의 길이를 꼼꼼히 재고, 그걸 책 페이지 수에 맞춰 일정 간격으로 나눴다. 그리고 주어진 각각의 분량에 실제 책에 등장한 조형 요소들을 차례로 그려 넣었다. 물론 기계적으로 옮겨다 그려 넣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책의 페이지 순서만 따랐을 뿐 각 요소 간의 어울림에 따라 배치와 구도 등을 계획하여 전혀 새로운 언어를 구사했다.

김영나에게 중요한 건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언어다. 이러니 여러 영역을 넘나든다는 표현도 그녀에게 적용하면 진부해진다. 2013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이후 마련한 서울에서의 개인전은 어찌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현대미술가에게 주는 예술상을 받은 '예술가 김영나'를 대중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다. 신인 작가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당연히 고민했다. 여기서 작가는 역발상으로 '작품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전시'를 준비했다. 오히려 디자이너인 자신에게 평소 익숙한 조형 요소를 이용해 전시 공간의 기능성을 재구성하는 실험을 했다. 전시 제목은 '선택 표본(Choice Specimen)'. 전형적인 개인전 형식이 아니어서 성의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시를 경험한 사람 모두가 한 작가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경험한 것만은 분명했다. 김영나는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순수 미술계에서는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다 보니 조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면이 있어요. 저는 디자이너이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요. 우리 모두 그렇게 각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입장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나는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제품 디자인을, 홍익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 이후 네덜란드 타이포그래피 공방 (Werkplaats Typografie)을 졸업했다. 2011년 갤러리 팩토리 'Found Abstracts' 전시에 이어 제4회 두산연강예술상 미술 부문에서 수상하며 2014년 두산갤러리 서울, 2015년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가장 최근에는 국제갤러리 그룹전 '유명한 무명'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에서 '테이블유니온' 멤버로 활동 중이다.





"Transitory Workplace 53"
490x560x358cm, mixed media, 2012
For an exhibition, «Life A User's Manual»,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SET», 2015, Installation view & exerted image from the book *SET*,
Solo exhibition, Doosan Gallery, New York